

# 선사시대 바위그림(岩刻畵)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A Study on Textile Design applied Prehistoric Age's Rock Art

김세원 · 길태운\*\*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 전공

### <요 약>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87년 단일품목으로 사상 처음 118억불을 수출하여 이태리, 서독에 이어 섬유수출 세계 3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와 인도네시아,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격한 추격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점차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섬유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디자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부분 바이어의 요구와 O.E.M. 방식에 의지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제는 전문화, 차별화, 개성화, 다양화된 디자인 창출이 고부가 가치화를 이루는 길임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에 천전리 바위그림과 대곡리 바위그림 등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성과 미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브랜드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 머리말

###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1960년대 이래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부각 되면서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여 왔지만, 90년대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등 열악한 작업환경, 노후한 시설, 환경오염 등의 규제 강화와 신소재 개발에 노력을 소홀히 하여 왔다. 더우기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대부분 주문자 생산방식(O.E.M.)에 의한 중저가의 수출을 지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예술전문대학 겸임교수

속하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다변화 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미처 대응할 만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섬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재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한 제품의 고품질화가 불가피하며 이의 일환으로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 발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고, 수준과 감각이 뛰어난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고유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의 디자인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등 주체성을 망각한 무분별한 태도로서 문화적 식민지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제는 '껴어있는 의식'과 '선구자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고유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세계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즉 한국적 정신과 표현의 기초 위에서 외래적 요소들을 새로운 양식 창조의 발전적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의 단순 모방적 태도를 불식시킴은 물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선사시대 바위그림<sup>2)</sup>의 예술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바위그림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화, 세계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위한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소비자는 소득증대와 해외여행의 자유화, 매스컴의 발달 등으로 글로벌(Global)한 시대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선진 패션 감각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감성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패션의 고감도화(高感度化)가 급속히 전달되어 국제적 감각의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sup>3)</sup>

본 연구는 울산 소재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과 천전리 바위그림을 중심으로 경주, 고령 등 영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의 현지 답사를 통하여 바위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형상과 문양을 경험하고 관련유물 및 선행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바위그림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바위그림을 모티브로한 현대적 감각의 패턴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섬유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적응성과 함께 선염, 날염 및 자수 등의 기법으로 제품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정서와 미적 감각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는 부가가치 높은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안수영, 「민화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1쪽

2) 일반적으로 비위에 그려진 그림을 '바위그림'이라 부르고 있다 이 '바위그림'이란 용어는 서양에서 널리 쓰이는 'rock art'나 중국의 '암굴'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기법상 크게 '새겨지는 것(rock engraving)'과 '그려지는 것(rock painting)'으로 구분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그려진 것'은 없으며 '새겨진 것'만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냥 '바위그림'이라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새겨진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암벽' '암굴', '바위조각', '암굴' 등이 있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유적들은 수직 암벽 이외에 편평한 수평 암면에 새겨진 예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암벽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상을 좁게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임세원,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1쪽

3) 강종화, 「어패럴 텍스타일 기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1쪽.

### 3. 국내의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염색 및 날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또한 선진국 제품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더욱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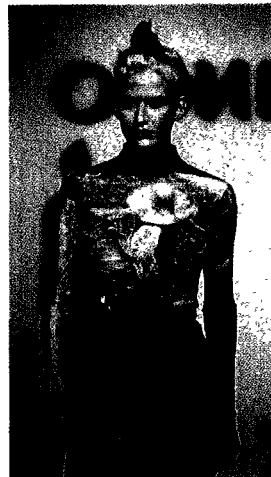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일본등 섬유 선진 각국에서는 국제적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를 앞세워 고부가 가치화 예술상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패션산업을 주도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의 관심아래 전통문양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국립 중앙박물관의 경우 디자인실을 만들어 우리의 무늬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질과 양적인 면에서 다양한 연구성과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그 실례로 대표적인 디자이너를 소개하면 그래픽 디자이너인 정연종은 신라금관 문양을 이용하여 와이셔츠, 스카프, 넥타이 등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저력있는 한 디자이너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sup>5)</sup>(그림1) 아울러 패션 디자이너 이신우는 70년대말 부터 우리 무늬를 이용해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늬 전문가'로서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을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상품화 시켜 여성용 직물,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등 나아가서는 악세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상품을 제시하였다.<sup>6)</sup> 또한 파리 컬렉션을 통해 발표 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그림2)

위와 같은 성과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한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의 모티브로서 채택한 바위그림의 미적 감각과 조형성을 탐구하여 보기로 하겠다.

· 그림1 정연종의 신라시대 전통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 그림2 이신우의 94·95 가을·겨울 파리 프레타 포르테(기성복) 컬렉션 장면으로 고구려벽화를 응용한 디자인



4) 김언배, 「가야유물용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조형논총』 제1권 제3호, 1996, 2쪽

5) 『월간공예』, 1990년, 12월호.

6) 『시사저널』, 1995년 8월 31일.

## II. 바위그림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바위그림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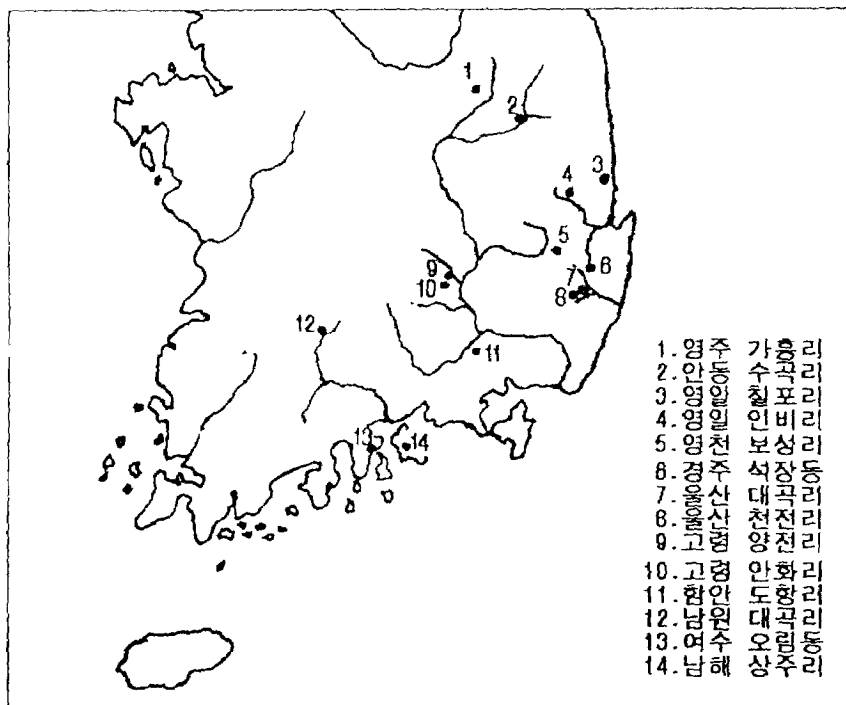
#### 가. 발견장소

바위그림은 신대륙이나 구대륙을 막론하고 과거에 인간이 살았던 곳에서는 대체로 어디 시나 발견된다. 다만 형식과 내용 등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바위그림들은 풍부한 고대인들의 생활내용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들인 것이다.

이러한 바위그림이 최초로 학계에 발표된 것은 1627년 스웨덴 보후스렌(Bohuslän)의 바위그림에 관한 것이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바위그림의 발견과 조사기록은 17세기 후반에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7)</sup>

우리나라에서 바위그림은 1970년 울산광역시 울주구 두동면 천전리에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가 신라시대 불적을 조사하던중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며 이듬해 고령 양전리(일명 알터) 바위그림을 비롯하여 울주구 언양면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이 발견되었다. 그 후 영일군 인비리, 칠포리, 경주 석장리 금장대 바위그림과 함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다수의 바위그림이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림3 우리나라 바위그림의 분포현황<sup>8)</sup>



7) 황용훈,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1987), 67-69쪽

8) 임세권,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8쪽 참조



#### 다. 바위그림의 성격(용도)

바위그림의 성격과 기능 또한 고고학, 미술사학, 국문학, 금석학, 민속학, 생태학 등 학문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바위그림의 제작이 제의(祭儀)와 관련되어 있으며 유적이 위치한 특징 등으로 미루어 바위그림 유적들은 제사유적 이라고 할 수 있어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학자들 간에 의견을 같이하여 성역이자 제단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짐승들에 관한 지식과 사냥방법, 분배법칙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보기도 하여 바위그림의 짐승들은 식용수(食用獸)가 아닌 종교 의례용으로 재생(再生)과 풍요(豊饒)를 위한 종교적 제의 장소로 보기도 한다. 대부분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성역으로 인정되었고 그곳을 통해 인간은 신과의 교섭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그 장소는 신이 강림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sup>12)</sup>

## 2. 바위그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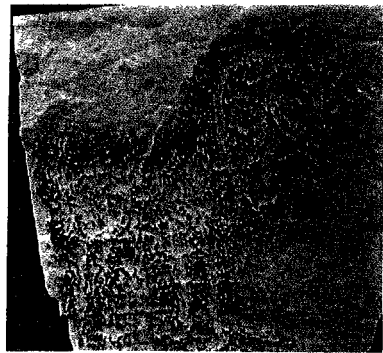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사 바위그림에 나타나는 암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내용을 달리 분류하고 있다.

장명수는 내용의 종류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울산 대곡리(그림4)와 천전리(그림5)그림중 일부와 경주 석장리의 '생물상(生物像)', 둘째는 여수 오림동(그림6), 함안 도항리(그림7)와, 경주 석장리(그림8) 및 영천 보성리(그림9), 고령 양전리(그림10), 안화리(그림11), 영일 칠포리(그림12), 남원 대곡리(그림13), 영주 가흥동(그림14), 안동 수곡리(그림15) 등 우리나라 바위그림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는 '기물도형상(器物圖形像)', 그리고 천전리 일부(그림16)의 '생활상(生活像)'으로 나누고 있다.<sup>13)</sup>

· 그림4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 부분



· 그림5 천전리 바위그림 부분



12) 앞의책, 73-74쪽.

13) 앞의 책, 1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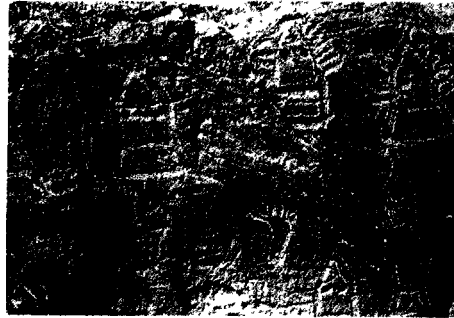
· 그림6 여수 오림동 바위그림



· 그림7 함안 도항리 바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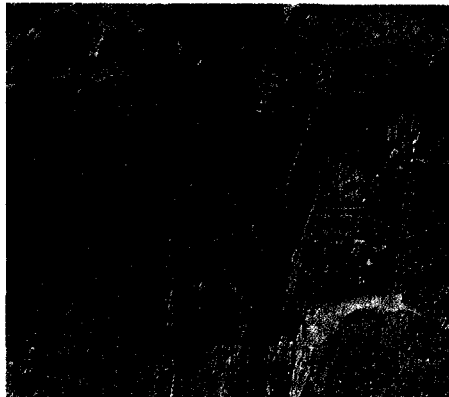
· 그림8 경주 석장리 바위그림 부분



· 그림9 영천 보성리 바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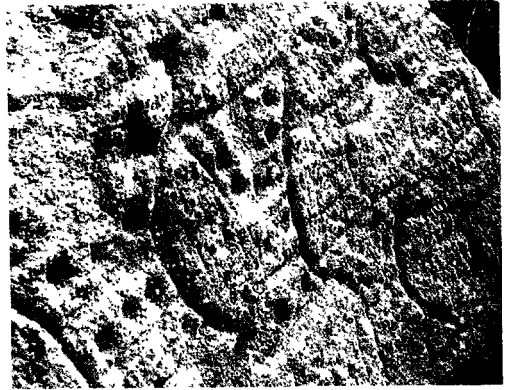
· 그림10 고령 양전리 바위그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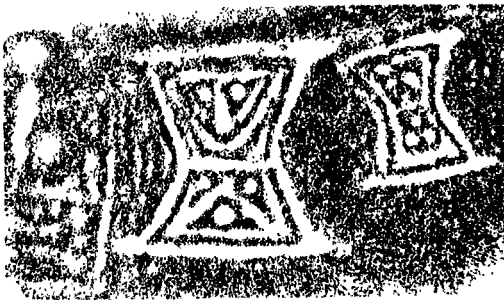
· 그림11 고령 안화리 바위그림



· 그림12 영일 칠포리 바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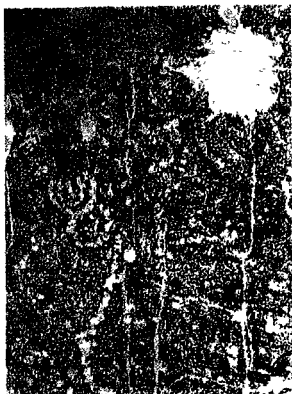
· 그림13 남원 대곡리 바위그림



· 그림14 영주 가흥동 바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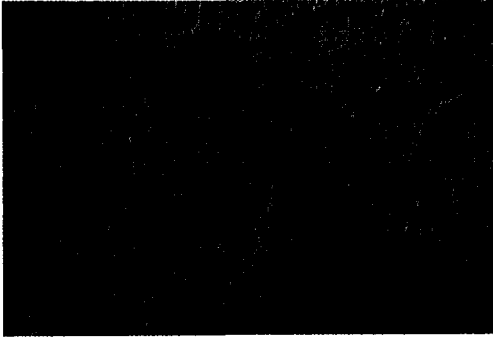


· 그림15 안동 수곡리 바위그림





· 그림16 천전리 바위그림 부분



· 그림17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 부분



또한 임세권은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동물과 인물을 주로한 사실적인 바위그림으로 울산의 대곡리(그림17)와 천전리 바위그림(그림5), 둘째 인면(人面)을 나타낸 추상적 바위그림으로 장명수가 주장하는 '기물도형상'에 해당되는데 고령 양전리, 안화리, 영일 칠포리,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남원 대곡리, 경주 석장리가 속한다. 셋째는 말굽형 바위그림으로 안동 수곡리(그림15) 유적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넷째는 원과 기하학적 곡선을 주로한 기하학 무늬 바위그림으로 울산의 천전리 바위그림(그림18)이 대표적이며, 다섯째 영일 인비리(그림19)나 여수 오림동(그림6) 등지의 고인돌 개석상에 새겨진 마제석 검과 석촉을 들수 있다. 여섯째는 남해 상주리(그림20)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추상 선각이 있다.<sup>14)</sup>

아울러 황용훈은 유형별로 3가지 종류, 즉 물상(物象) 암각화, 기하학문(幾何學紋) 암각화, 그리고 성혈(性穴) 등으로 나누었는데 동북아시아 지역 암각화와 같은 계통으로 확인됐으며 우리나라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다.<sup>15)</sup> 위의 여러 견해중 본 논문에서는 황용훈이 분류한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물상 암각화

이들 형상은 대부분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였는지 알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암각들로 크게 나누어 동물, 인물, 배 수렵 및 어로 등 네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이들 물상 암각의 한 주제가 되고 있는 동물 암각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새, 고래 거북이 표범, 염소, 들소, 사슴, 토끼, 멧돼지, 곰, 개, 여우 등과 말, 낙타, 뱀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견 되는 것은 수렵대상이 되는 사슴과 어로 대상의 고래와 거북이 있다.(그림 30 참조) 인물을 주제로한 물상 암각은 단순 인물과 행렬도 등으로 나타나는데 단순 인물 암각은 반구대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며 그중에서 성기가 있고 짧은 꼬리가 있는 인물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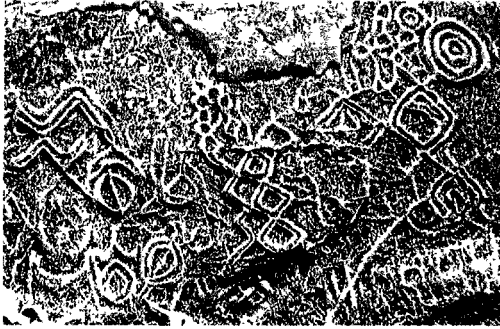
14) 앞의 책, 233-235쪽.

15) 황용훈,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1987), 122쪽.

(그림17)도 있다. 양손을 벌리고 손가락을 활짝 편 아주 도식화된 암각(그림21)도 있으며 얼굴만을 그린 상징화된 단순 인물 암각(22)도 발견되고 있다.

행렬도(그림23)는 천전리 암각화에서 발견되며, 이것은 예리한 금속으로 긁어내어 파내는 기법으로 초기 철기시대와 역사시대 암각화로 알려지고 있다.

· 그림18 천전리 바위그림 부분



· 그림19 영일 인비리 바위그림



· 그림20 남해 상주리 바위그림



· 그림21 반구대 바위그림, 인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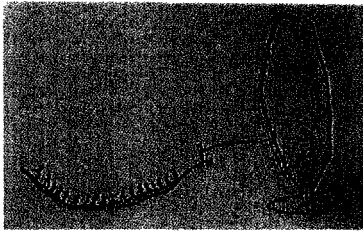
· 그림22 반구대 바위그림, 인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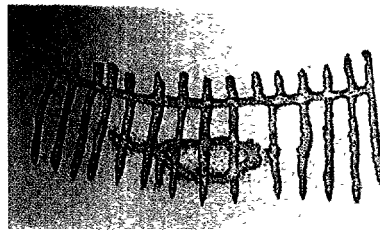
· 그림23 천전리 바위그림, 행렬도



· 그림24 반구대 바위그림 부분



어로광경(좌)



수렵(우)

배 암각화는 한반도 내의 암각화의 문화시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암각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배 암각은 반구대의 어로광경(그림24 상 참조) 암각화에서 발견되는데 이 암각들은 비교적 단순한 선각(線刻)의 암각들이다. 끝으로 수렵광경의 암각화로서 덧을 놓아 사냥했던 흔적으로 반구대에는 덧에 빠진 동물의 표현과 목책에 갇혀있는 동물의 표현(그림24 하 참조) 등이 나타나고 있다.<sup>16)</sup>

나. 기하학문 암각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하학문 암각화는 암각화에 나타난 형상 만으로는 알아보기가 힘든 도식화된 상징주의 암각으로 그 유형에는 크게 곡선문과 직선문으로 대별되나 확실하게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써 원, 동심원, 와문, 직선문, 능문, 사각문 등이고 단순한 문양과 같은 형태로는 우렁무늬, 가지무늬 등(그림18 참조)이 있다.

김원룡은 마름모나 타원형을 세로로 반분한 것(그림18 참조)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최근에는 이 동심원과 함께 나타나는 작은 타원형들은 곡식으로 나타내는 견해도 나온 바 있다.

중국의 송야오량(宋耀良)은 동심원이 상징하는 것을 세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태양의 변형된 모습이라 하였고, 둘째는 생식 숭배를 의미하는 부호로 생각했다. 셋째는 동심원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령 양전리 암각화의 얼굴 그림(그림10 참조)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은창은 가면일 것이라 추정하고 인물상의 형식화된 호부(護符)로 보았다. 김원룡은 둘레의 짧은선을 목책으로 보아 전체 형태를 목책에 둘러싸인 성역을 표시한 것과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황용훈은 그냥 기하학적 그림으로 언급하였으며<sup>17)</sup> 임세권은 연해주 지방의 영향을 받은 가면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장명수는 방패형으로, 송화섭과 이하우는 지모신상, 이상길은 패형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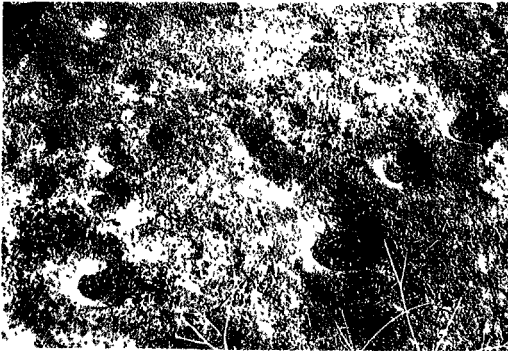
16) 앞의 책, 125-127쪽.

17) 임세권,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1~119쪽.

### 다. 성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성혈은 경희대학교 발굴단에 의해 1971년 여름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셋터에서 발견 됨으로써 한반에도 성혈(cup-mark)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전국적으로 100여곳 이상의 많은 수의 성혈이 발견되는 그 문화적 배경은 여러가지로 추측될 수 있다. 주로 성혈은 인물상과 함께 나타나 여성임을 나타내 주기도 하며, 단순히 성혈만을 새겨 놓은 암각과 함께 풍요와 다산의 기원을 상징(그림25)한다. 성혈은 제작시기가 모호하며 그것이 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식묘의 개석에 많이 나타난다.<sup>18)</sup> 그러나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 방기리 성혈군(그림26)은 인위적으로 한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단순 동심원과 십자형 암각(그림 27)과 함께 지난 94년 울산 M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의하여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최대의 성혈군이다

· 그림25 영일 칠포리 성혈



· 그림26 방기리 성혈군



· 그림27 십자형 암각



18) 김영미, 「한국 선사암각화의 형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8쪽.

### 3. 바위그림 유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바위그림들은 대략 15군데가 넘는데 대부분 영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남해 상주리 유적 그리고 전남 남원 대곡리 유적을 제외 하면 모두 경북 내륙에 분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 방문이 가능했던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경주 석장리 금장대, 고령 양전리 바위그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울산의 대곡리 반구대, 천전리 바위그림과 고령의 바위그림은 대표적인 선사 고대 유적으로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바위그림들의 양식적 특성은 대체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9)</sup>

#### 가. 천전리 바위그림

국보 147호로 지정된 천전리 바위그림은 반구대 바위그림에서 약 2km떨어진 대곡천 상류지역에 위치하며 높이 2.7m, 너비 9.5m의 병풍처럼 펼쳐진 장방형의 암면과 몇개의 바위면에 새겨져 있다. 이 암벽 앞으로 평평한 암반들이 형성되어 있고 맞은편으로 급경사의 높은 암벽이 이어져 있어 풍광이 수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바위그림이 대부분 새겨져 있는 대형 암면은 상단부가 15도 정도 앞으로 비스듬히 서있는데 풍화작용에 의한 균열과 탈락 현상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요즘들어 무분별한 탁본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곳에는 네종류의 그림이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암면을 상하로 반분하여 윗부분에 쪼오기와 갈기 수법으로 된 사슴등을 비롯한 동물들과, 기하무늬들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가는 선각의 글씨들과 인물 및 동물 또는 기하무늬들이 쪼아파기와 굿기 수법으로 새겨져 있다.<sup>20)</sup>

이 바위그림의 조각 양식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기하학 무늬와 둘째 상단부의 동물상, 셋째 하단부의 선각상과 넷째 300여자에 이르는 명문등이다.

첫째, 기하학 무늬(그림18)는 동심원, 마름모꼴, 나선형 등으로 다양하나 본질적으로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의 기하학무늬와 흡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명쾌한 형태와 역동적인 힘이 느껴진다.

둘째, 상단부 면각 동물상(그림5)은 쪼오기 새김법으로 매우 얇게 새겨져 있어 마멸이 심하며 왼편 동물상은 암,수 두마리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좌우 대칭적으로 표현하였고 반구대 바위그림의 역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단순화, 도식화된 특징을 보인다.

셋째, 하단부의 선각그림(그림16)들은 모두 강하고 날카로운 금속제의 칼이나 끌 같은 것으로 새긴듯 하며 표현된 그림들의 예로보아 세련된 전문가가 아닌 삼국시대 신라토기에 그림을 그려넣던 장인들의 솜씨로 추정된다.

넷째, 명문은 을사년(乙巳年)에 이루어진 원명이 있고 이어 기미년(己未年)에 2차로 새겨진 추명이 있다. 특히 추명은 왕과 왕비를 포함한 신라사회의 일면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약 300자 가량이 보이고 있다.<sup>21)</sup>

19) 임세권,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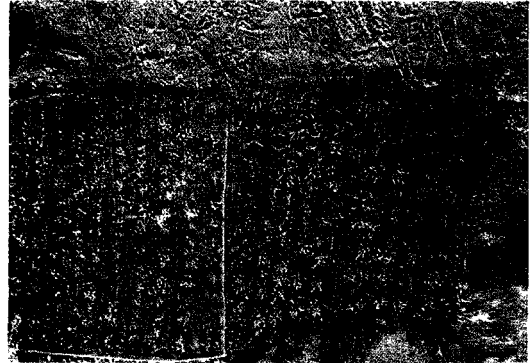
20) 앞의 책, 42쪽.

21) 황수영·문명대, 「반구대」, (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188-189쪽.

· 그림28 천전리 바위그림 전경



· 그림29 천전리 바위그림 명문



#### 나.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

울산광역시 울주구 언양면 대곡리의 사연(泗淵)댐 상류에 위치하며, 입구는 거북이와 닮은 지세를 취하고 있어 '반구대(盤龜臺)'라 불리고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뛰어난 명승지로 암벽에는 '반구'라는 명문 등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많은 글씨와 그림이 새겨져 있다.

1971년 12월 25일 발견된 바위그림은 최근에 국보 285호로 지정됐으며 천전리 바위그림에서 약 2km 떨어진 하류의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아래, 가장 넓고 반반한 하나의 암면에 집중되어 있다.(그림30) 너비 6.5m, 높이 3m 가량의 이 중앙암면을 중심으로 좌우 15~6m에 걸쳐 약 200여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중앙암면은 북향하고 있고 동쪽에 암면이 약간 튀어 나와 있어 햇빛이 들지 않으며 석양 무렵에만 사양이 암면을 비추어서 음각된 그림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바위그림은 평상시에는 호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 볼 수 없는데 심한 갈수기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심한 가뭄으로 노출 되었다가 역시 무분별한 탁본 등의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림의 주제는 인간, 동물, 도구와 배를 비롯한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보면 인간은 악기를 부는 모습, 춤추는 모습,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모습, 가면(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동물은 반구대 바위그림에서 가장 빈번하면서 중심적으로 묘사된 주제이며 종류도 다양하여 고래, 물개, 바다거북 등의 바다짐승들은 주로 면각 새김법에 의하여 표현되었고 사슴, 호랑이, 멧돼지 등의 물짐승들은 선각 새김법으로, 아울러 면각과 선각의 혼용으로 묘사된 동물도 있다. 이들 동물중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고래와 사슴이며 그외에 그물, 율타리, 배 등의 도구도 나타나며 양식적 특성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연주의 양식으로 고래 표현이나 사슴, 멧돼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4 참조) 둘째, 가면, 인물의 정면관, 고래나 물고기들의 배면관을 제외한 모든 표현은 측면관이다. 특히 육지동물에서 다리의 묘사는 앞뒤 한쌍씩 4개로 나타낸 것과, 앞뒤 모두 하나씩만 나타낸 것이 섞여 있으나 대체로 앞뒤 모두 한쌍씩 묘사한 것이 많아 왜곡 원근법이 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물의 움직임이 풍부하여 전체적으로 생동감을 준다.

넷째, 중복묘법, 즉 겹친 그림의 수법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나 양식이 달라서 겹치는 수도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실한 단정을 짓기 어려우며 한편으로 그림의 상대 연대를 결정해 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sup>22)</sup>

· 그림30 반구대 바위그림



다. 고령 양전리 바위그림

보물 605호로 지정된 바위그림은 경북 고령군 고령읍 양전리 알터 부락에 있다. 고령읍의 동쪽으로 흐르는 대가천과 합천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고령읍 쪽으로 흘러드는 안림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유적은 이 합수 지점의 동쪽 산자락(금산재) 아래 있는데 유적의 앞에는 하천 범람원이 형성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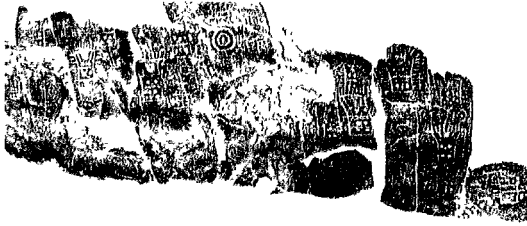
암각화의 내용(그림31)은 동심원과 얼굴 형태의 문양 등 모두 29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대곡리나 천전리의 유적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내용도 훨씬 단순하다. 그림의 형태는 인면(人面), 동심원 그리고 원안에 4개의 점을 찍은 것이 하나 있으며 모두 29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71년 발견 이후 마모가 심하여 보호각을 씌웠다.(그림32) 암면 중심부에 약간의 공간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인면 14점, 동심원이 3점이 있고, 오른쪽에는 인면 8점, 동심원 1점 원안에 점을 4개 찍은 것이 하나 있다. 새김법은 천전리의 추상 선각의 기하무늬 그림 같이 갈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고령과 천전리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심원을 들수 있겠다. 이 동심원은 태양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어 태양숭배와 관계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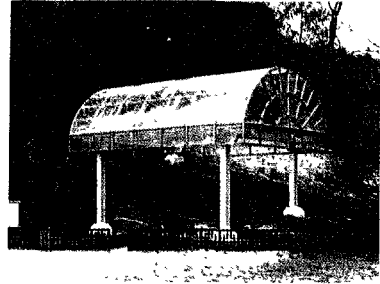
동심원 외에 이 바위그림의 주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인면으로 추정되는 네모꼴의 그림이다. 이것은 윗부분이 중간이나 아래보다 넓게 퍼진 사다리꼴로 되어 있으며 내부를 하나 또는 둘의 횡선으로 나누어 있다. 윗칸에는 반원, 또는 역삼각형을 새기고 중간과 아래 칸에는 구멍을 2,3개씩 뚫으며 밑변을 제외한 들레에는 방사상의 단선을 사방으로 뻗쳐 놓아 전체 형태가 매우 괴이한 느낌을 주고 있다.<sup>23)</sup>

22) 앞의 책, 242-243쪽.

· 그림31 양전리 바위그림



· 그림32 양전리 바위그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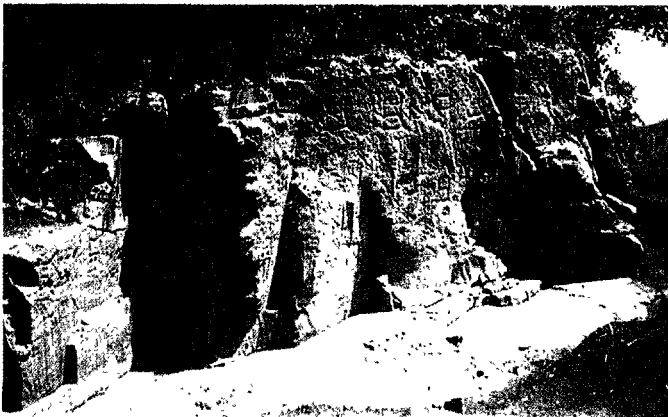
## 라. 경주 석장리 바위그림

경북 경주시 석장리 서천면에 있는 속칭 '금장대'라고 부르는 곳으로 수직 암벽에 다수의 암각이 새겨져 있다.(그림8, 33) 이곳은 서천과 북천이 합해져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합수 지점으로 유적은 합수 지점 서쪽에 있으며 암면의 앞쪽에 1~2m정도의 공간이 있다.

그림이 새겨진 암면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으로 격어져 좌우 둘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 암면들은 모두 매끈한 수직면을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인공적으로 깨뜨려서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sup>24)</sup>

좌우 암면중 대부분 암각은 좌측 암면에 집중 되어 있다. 암각의 구성은 고령 양전리식의 인면 암각과 둘레에 방사상 단선을 돌려 새긴 삼각형 모양의 인면 암각<sup>25)</sup>, 사람 및 짐승의 발자국, 사람, 탈(가면), 산과 동물, 배, 여성의 성기 모양이 새겨져 있다.<sup>26)</sup>

· 그림33 석장리 바위그림



23) 임세권,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4-56쪽.

24) 앞의 책, 72쪽.

25) 앞의 책, 71쪽.

26) 이상길, 「패형암각의 의미와 그 성격」,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1996), 148쪽.



### III. 바위그림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 1.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

텍스타일(textile)이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섬유류 봉제품을 형성하기 위한 소재, 즉 '섬유' 또는 '직물'을 뜻하며" 이 용어는 라틴어의 'textilis'의 동사 'texere', 즉 '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며<sup>27)</sup>, 디자인(design)은 라틴어의 '표시하다'라고 하는 'designare'에서 유래되었고 '계획을 명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어의 dessin, 이탈리아어의 disegno와 같은 뜻이다.<sup>28)</sup>

다시말해서 텍스타일 디자인은 실, 섬유, 천 등을 소재로 하여 그 목적에 맞는 조형활동을 하기 위한 기획설계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은 시대적 변화 추세에 따라 본래의 개념으로부터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고대 이래로 근대까지의 텍스타일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던 의생활의 한 분야로서 개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성이 중요시 되었지만 현대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이르러서는 창작자와 소비자 문제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인하는 지표의 핵심 대상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sup>29)</sup>되는 추세이다.<sup>30)</sup>

#### 2. 텍스타일 디자인의 요소

텍스타일 디자인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개성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뒤따르는데 실제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시장성(市場性)이다. 시장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장성이란 디자인이 많은 대중의 기호도를 만족시키고, 공감을 얻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종류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각 섬유에 따른 종류에 의거하여 생산량(生産量), 생산비(生産費) 등을 측정하여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지역의 기후, 문화적 특징,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 유행의 경향, 나아가서는 시장조사, 마케팅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가공성(加工性)으로 직물의 문양과 색채를 나타내는 공정을 의미한다. 디자인이 아무리 창조적이며, 시장성이 높아도 적절한 소재, 문양의 형태와 색채에 따른 프린트, 제품의 용도에 따른 색채와 문양등 기술적(技術的), 재산적(探算的)으로 최종적인 제품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는 예술성이다.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성이란, 사실상의 시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양한 패턴과 색채 및 표현으로 직물상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27) 안수영, 「민화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5쪽

28) 이수철, 「텍스타일 디자인」, (조형사, 1992), 8쪽.

29) 최근에 와서는 생활품 분야에서도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접시, 도자기, 커피잔, 유리그릇, 주방기구, 선물용 포장지, 파티용 장식접시, 카드 등 실로 다양한 제품에 텍스타일 디자인이 응용된다.

이경순,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현암사, 1994), 22쪽.

30) 송변수, 「현대 섬유미술」, (디자인하우스, 1996), 179쪽.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직물의 고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예술성은, 현대 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적인 패턴 감각을 가지는 우수한 디자인으로서의 제품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상품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sup>31)</sup>

이상과 같은 디자인 요소들은 그 비중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완전한 섬유제품을 100%로 볼 때에 시장성 50%, 가공성 30%, 예술성 20%로 비중을 두어 그 요소가 일체화 될 때 비로서 우리는 그 디자인이 우수한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sup>32)</sup>

### 3. 텍스타일 디자인의 용도

오늘날 우리의 생활양식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변하여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서구화 되었으며 그 의식주 생활의 변화로 인테리어 패브릭(interior fabric)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국민의 GNP 향상,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주거 양식의 변화 등이 텍스타일 디자인 용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카펫, 소파커버, 천벽지, 커튼, 및 실내용 악세사리류, 장식류 등도 최근에는 인테리어 일부로 생각되어 생활용구에 필요한 각종 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식용 직물인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및 침구용 직물 등 각종 직물의 디자인의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직물의 용도별 특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직물디자인은 날염, 자수, 직물설계, 자카드, 워빙 등이 있고

둘째, 실내 장식용으로는 커튼, 식탁보, 카펫, 소파커버, 방석 등이

셋째, 침구용 이불에는 이불, 베개, 침대, 담요, 모포 등과

넷째, 장신구용 직물은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등을 들수있는데<sup>33)</sup> 위에 열거한 용도별 디자인 중에서 사용도가 비교적 높은 넥타이와 스카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넥타이

##### 1). 넥타이의 역사

넥타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목에 감거나 묶는 악세사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정의 하에서 넥타이를 '끈'이라고 한다면 그 기원은 기원전 50년경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거리에서 빈번하게 변론(辯論)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 변사들의 목둘레에 '포칼(Focal)'<sup>34)</sup>이라고 불리는 천을 휘감았는데 그것을 넥타이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시대에는 휘감아 둘렀을 뿐 묶는법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단하게 조이는 넥타이에 가깝게 된 것은 2세기초 로마병사의 방한용 '포칼'을

31) 이지민, 「한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4-45쪽.

32)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12-13쪽

33) 앞의 책, 135쪽.

34) 라틴어로 '머리', '목구멍'을 의미하는 단어 당시의 엘리트들이 성대를 소중히 지키고, 또 지적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심볼로서 사용.

들수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넥타이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패셔너블한 악세사리로서 넥타이의 원형이 완성된것은 16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였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섬기기 위해 파리에 온 크로아티아 용병들은 앞가슴에 멋진 장방형의 천을 매고 있었는데 그 맵시에 반한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 그것이 크게 유행되었으며 넥타이의 기원을 이루었다.

프랑스어로 넥타이를 크라바트(Cravate)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로아티아의 프랑스어인 크로아트(Croate)가 변한 것이며 이 명칭은 오늘날에도 넥타이의 보다 점잖은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크라바트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세기초에 다시 나타났으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남성 의상의 주류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지고 '크라바트'라는 명사 대신에 '넥타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50년대에는 크라바트 앞부분의 묶는 부분만을 독립시킨 나비 넥타이가 등장함에 따라 '두르는것'에서 '묶는것'으로 변화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1870년대에는 영국의 애스코트 경기장에 모인 인사들의 넥타이로서<sup>35)</sup> '애스코트 타이(Ascot Tie)'가 등장했으며 1890년경에 현재의 넥타이와 동일하게 대검과 소검의 형태로 묶어 느러뜨리는 '포 인 핸드 타이(Four in Hand Tie)'<sup>36)</sup>가 등장했다. 이 '포 인 핸드 타이'라는 것은 사두(四頭)를 세운다는 의미로 마부가 말고삐를 다루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매듭이라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식 복장 문화의 도입은 19세기말 부터로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식민지 침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행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마카오 신사'라 부르는 계층의 탄생과 함께 미국식의 선이 붉은 넥타이(California Red)를 즐겨했으며 1960년대 미국의 아이비 룩(Ivy Look)이 국내에서 선보이면서 폭이5~6cm 정도인 스트라이프(Stripe) 타입이었다. 1970년대 들어와 넥타이 형태에 변화가 생겼는데 폭이 약 10cm 정도로 넓어지고 와이드 타이(Wide Tie)가 세계적으로 유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였다.<sup>37)</sup>

· 그림34



· 그림35



35) 포 인 핸드 타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넥타이는 양끝이 칼(劍) 처럼 생겼으며 한쪽은 큰칼,다른쪽은 작은 칼처럼 생겼다 하여 큰쪽을 '대검', 작은쪽을 '소검'이라 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부분을 '중검'이라 한다.

36) 영국신사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가 창안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묶기 쉽고 간단한 스타일의 넥웨어(neckwear)는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넥타이의 주 스타일로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7) (주) 클리포드 홍보실, 『The Necktie & Shirt』, (금석인쇄사, 1994), 12-15쪽 참조.

## 2) 넥타이의 종류

넥타이는 패션지향적으로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상외로 손이 많이 가는 수공업적 취향의 산업이다.

제조공정에 의한 넥타이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직조타이(섬유 및 실 염색 가공된 제품: 자카드), 둘째 프린트 타이(제직된 위에다 날염한 제품, 발염, 본염), 셋째 니트 타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sup>38)</sup> 스타일에 의한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가) 포 인 핸드 타이(Four in Hand Tie) 남성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아래로 길게 내려 뜨리는 형태이다. 이 포 인 핸드 타이를 실루엣으로 분류한다면, 대검에서 중검까지의 모양이 직선인 스트레이트(straight)형, 큰 병과 같이 잘록한 보틀(bottle)형, 그리고 약간 잘록한 세미 보틀(semi bottle)형이 있다. 또한 폭에 따라 분류하면, 폭이 8cm 전후의 레귤러(regular), 10cm 이상 폭넓은 것을 와이드 타이(wide tie), 4-6cm 정도의 좁은 슬림 타이(slim tie) 또는 내로우 타이(narrow tie)로 구분한다.

### 나) 애스코트 타이(Ascot Tie)

영국 애스코트라는 경마장에서 귀족들이 폭 넓은 넥타이를 맨것이 시초가 된 스카프 처럼 폭이 넓은 타이.

### 다) 보우 타이(Bow Tie)

정식 예장에 매는 타이로 나비모양으로 만들어 매는 것이다. 검은색은 턱시도(tuxedo)에, 흰색은 연미복(evening dress)에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즈음 꽃무늬 또는 기하학적인 무늬의 화려한 보우 타이도 착용한다.

### 라) 스틱 타이(Stuck Tie)

턱시도 착장시에 가끔 볼 수 있는 타이로서 매듭이 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이의 양쪽을 목 앞에 걸어 셔츠의 깃 사이에 겹치게 한 후 스틱핀(stick pin)으로 고정 하여 역삼각형의 모양을 보이는 타이이다.<sup>39)</sup>

· 그림36 포 인 핸드 타이



· 그림37 애스코트 타이



38)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149쪽

39) (주) 클리포드 홍보실, 『The Necktie & Shirt』, (금석인쇄사, 1994), 22-23쪽 참조.

· 그림38 보우타이



3) 넥타이의 패턴

넥타이에 응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체크, 스트라이프, 기하패턴, 추상, 물방울, 원 포인트, 페이즐리, 사라사, 꽃무늬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가) 볼드 스트라이프(bold stripe):대담한 사선무늬
- 나) 올 오버(all over):넥타이 전체에 같은 무늬가 규칙적으로 깔려 있다.
- 다) 페이즐리(paisley):인도 전통문양으로 화려한 느낌.
- 라) 클럽 피겨(club figure): 영국 귀족, 클럽의 문장(紋章)을 직조한 전통적인 무늬.
- 마) 패널(panel): 끝 부분에 여백처리를 하여 하나의 포인트를 준다.
- 바) 레귤러 스트라이프(regular stripe): 흔히 볼 수 있는 사선무늬를 말한다.
- 사) 호라이즌틀 스트라이프(horizontal stripe):수평 무늬.
- 아) 타탄 체크(tartan check):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살무늬.
- 자) 도트(dot): 물방울 무늬로 크기가 다양.<sup>40)</sup>

이상과 같이 9가지가 있으며, 유행과 패션의 흐름에 따라 넥타이의 폭, 길이, 매듭, 주름 등 형태가 변화하고, 문양과 색상 또한 바뀐다. 그러므로 소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나. 스카프

스카프의 기원은 14세기초 어깨에서 힙(hip)으로 비스듬히 매거나 비틀어 걸쳐입는 스트립(strip)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그 후에 의미가 확대되어 17세기에는 여성이 머리카락을 감싸거나 외투 위에 덧입는 케이프(cape)로 발달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스카프는 19세기에 와서야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여성의상으로 활용되는 장식물로 정착하게 되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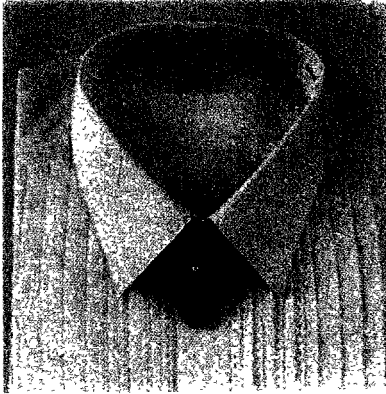
중동지역에서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상당히 패션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동안 스카프는 의상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위치로 변화하여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8년 파리의 스카프 전시회에서 칼라 부분의 포인트로 목에만 두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머리, 목, 허리, 다리 등에도 착용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이 소개되었다.

40)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158쪽.

41) 김정혜, 「전통문양을 이용한 스카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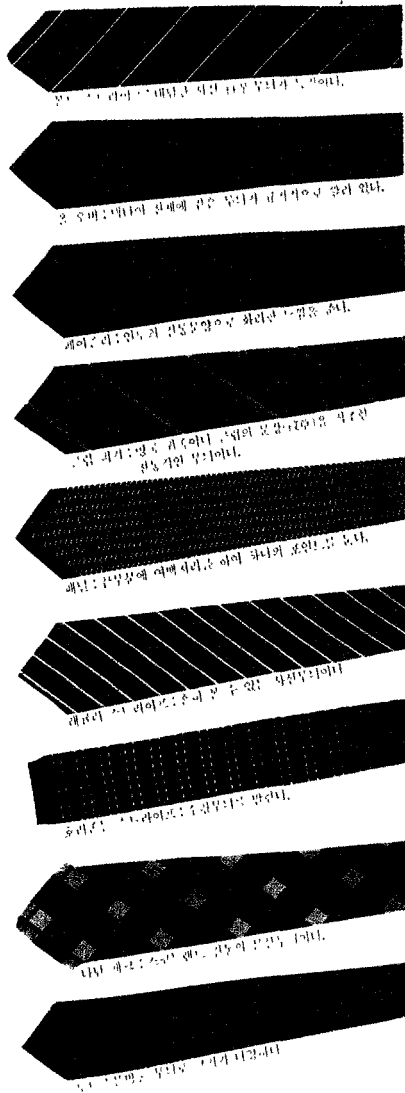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성들은 외출용 쓰개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였으며, 그후 1900년경 부터 신문물의 영향을 받아 신여성 또는 고관부인들이 쓰개치마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목도리, 즉 '솔'이 등장하게 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솔은 처음에 신여성들 간에 방한용과 장식품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차츰 일반화 되면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sup>42)</sup>

· 그림39 스틱 타이



· 그림40 넥타이의 기본 패턴

넥타이의 기본 패턴 9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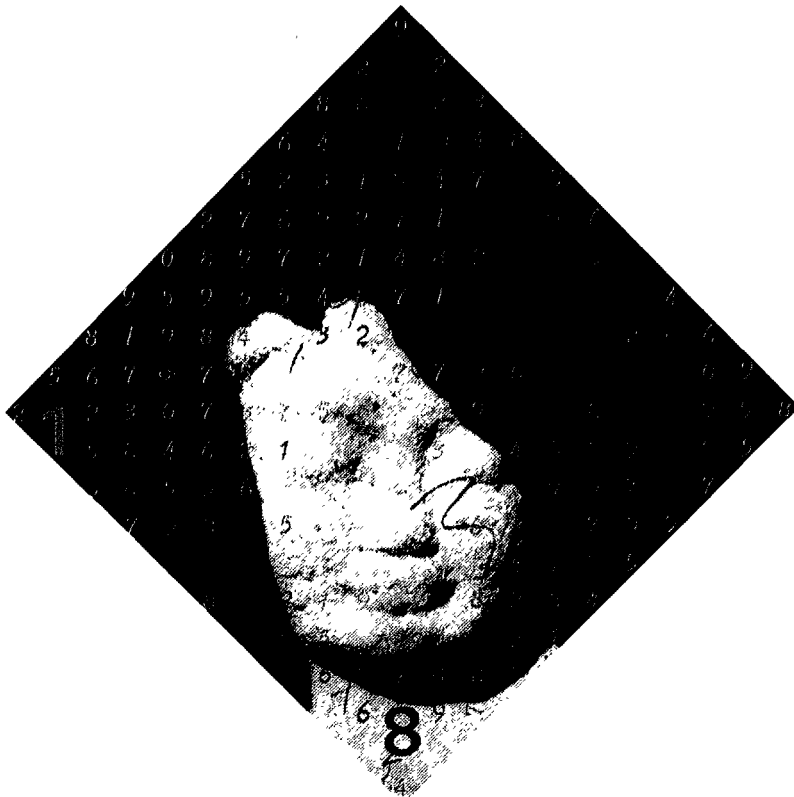


42) 이지민,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53쪽

스카프의 세분화된 명칭을 살펴보면, 목에 두르거나 머리를 싸매는 장식용 스카프, 액세서리 및 방진용(防塵用)이며 목에 걸거나 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주로 무늬가 있는 실크로 만든 소형 정사각형의 네커치프(neckerchief), 방한, 방서, 방진 또는 장식용으로 어깨를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숄(shawl), 주로 방한용으로 남녀가 같이 쓰는 직사각형인 머플러(muffler), 모피나 우모로 가늘고 길게 만든 감촉이 부드러운 여성용의 보아(boa)와 방한과 장식용으로 모피, 견직, 모직, 우모로 등으로 길게 만든 스톨(stole) 등이 있다.

아울러 스카프는 제작시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변해가는 소비자의 심리 및 유행성을 주도할 수 있는 문양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카프 문양으로는 줄 문양, 체크 문양, 물방울 문양과 꽃 문양, 페이즐리 문양도 많이 사용되고 특징에 따른 동물 문양, 회화 문양, 추상 문양, 문자나 심벌마크 문양, 아라베스크 문양 등을 들수 있다.<sup>43)</sup>

· 그림41 회화 문양과 숫자를 이용한 스카프 디자인  
(84×84cm, 김세원, 1997)



43)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159-161쪽 참조.

#### 4. 패턴디자인 및 제품제작

무수히 많은 패턴디자인은 오랜기간 동안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역사, 경제적 수준과 그 지역의 기후, 종교, 환경 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해왔으며, 오늘날 더욱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형적이며 미적인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시장성, 가공성, 예술성과 색상이나 문양의 조화, 모티브의 선택, 공정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up>44)</sup>

따라서 하나의 디자인을 제품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게되며, 생산 또한 방법에 따라 선염(先染)<sup>45)</sup>, 후염(後染)<sup>46)</sup>, 자수(刺繡)<sup>47)</sup>, 문직(紋織)<sup>48)</sup>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후염은 다시 날염(捺染)<sup>49)</sup>, 침염(浸染)<sup>50)</sup>으로 나눈다.

본 논문에서는 천전리 바위그림과 반구대 바위그림을 모티브로 넥타이와 스카프 디자인을 하였으며, 선염, 날염 및 컴퓨터 자수 등 3가지 기법으로 실크를 소재로 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 가. 선염

###### 1) 기마행렬도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A)

천전리 바위그림 하단부에 사실적으로 표현된 기마행렬도(騎馬行列圖)와 하단부의 기하학적인 마름모꼴을 모티브로 구성하였다.

가는 선으로 새겨진 행렬도에서 신라인들의 자유분방한 기상과, 그리고 왜곡된 형태에서는 익살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실버(silver)와 골드(gold) 톤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고상함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마름모꼴의 횡(橫)적 배열로 남성의 강함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였다.

패기와 정열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30대 부터 경제적 안정으로 각 분야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50대까지를 타겟(target)으로 하였다.

44) 김지희 · 정이상 · 신중규, 『날염디자인』, (조형사,1992), 86쪽.

45) 선염-생사(生絲)를 염색한 후 염색된 실을 다양한 간격이나 배열로 제직하는 것을 말하며 제직시 경사, 위사의 교차방법이나 그 가닥수를 더하거나 감하므로써 제직효과를 달리하는 것.

46) 후염-생사로 원단을 제직한 후 염색하는 것.

47) 자수-선염원단, 후염원단 또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생지원단에 여러가지 실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무늬를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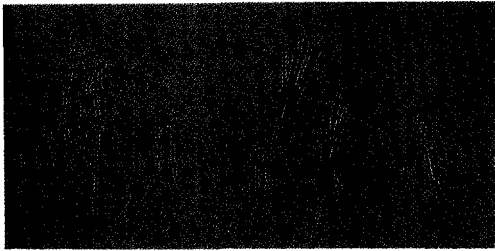
48) 문직-생사 또는 염색된 실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무늬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선염디자인이 원단의 전면적인 제직효과를 얻는 것이 주 목적인데 비해 문직디자인은 원단위에 나타난 부분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49) 날염-제직된 원단위에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형태의 무늬를 만들기 위해 염료와 형(型)을 이용하여 염색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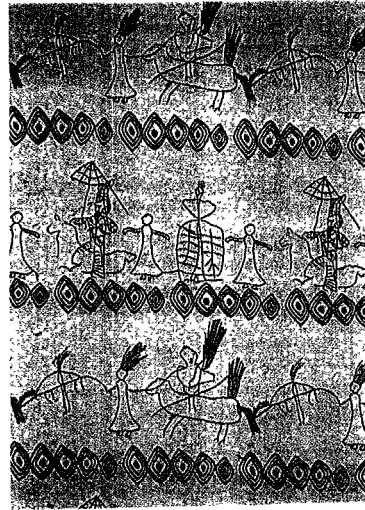
50) 침염-실 또는 제직된 원단을 염료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염색하는 것. 심춘섭, *중한국 텍스타일디자인의 주변환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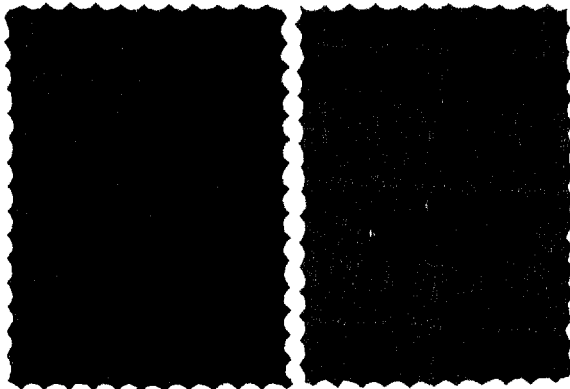
· 그림42 디자인 소스(design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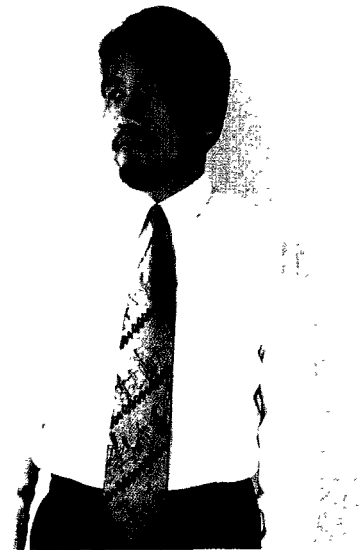
· 그림43 패턴 드로잉(pattern drawing)



· 그림44 칼라웨이(color way)



· 그림45 제품 A



2) 동심원을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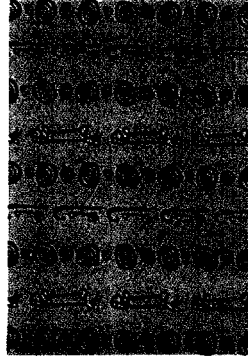
천전리 바위그림에 표현된 세겹 동심원 무늬를 모티브로 크기에 변화를 주어 크고 작은 3개의 동심원을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동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나무가지 형태의 무늬를 위아래로 나누어 배치하여 마치 과녁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 같이 속도감을 더해 주었다.

3~40대의 지적이며 삶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자신을 정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자신의 일을 추구해 나가는 세련된 남성의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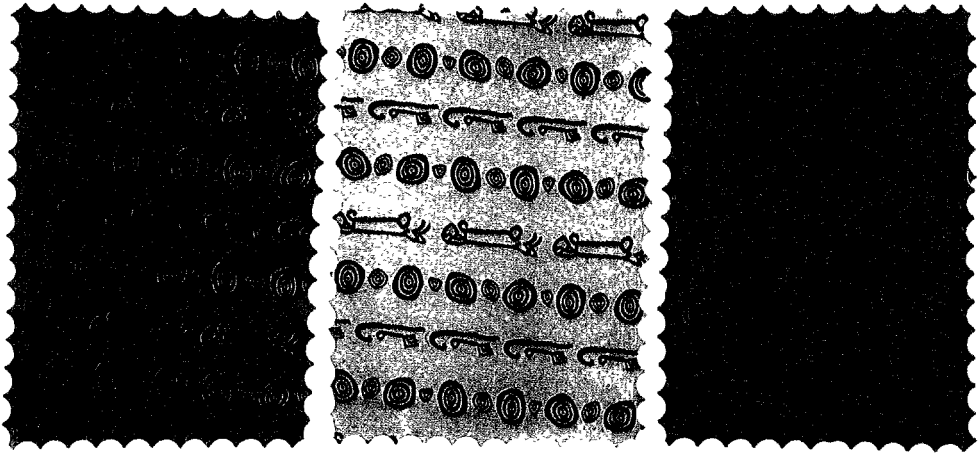
· 그림46 디자인 소스



· 그림47 패턴 드로잉



· 그림48 칼라웨이



· 그림49 제품 B



3) 나선형 무늬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C)

천전리 바위그림 중앙에 새겨진 나선형 무늬는 밑에 받치고 있는 가지무늬와 어우러져 한 포기의 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하게 도식화된 문양을 반복해서 배치하여 풍요로움을 강조 하였으며, 같은 문양을 축소시켜 마주보게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변화와 조화를 추구하였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선의 횡분할로 디자인 하였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차분한 내추럴 색상을 통해 여유있고 고급스러우며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짜여진 일상생활에서 자유와 여유를 찾으려는 40대 전후를 타겟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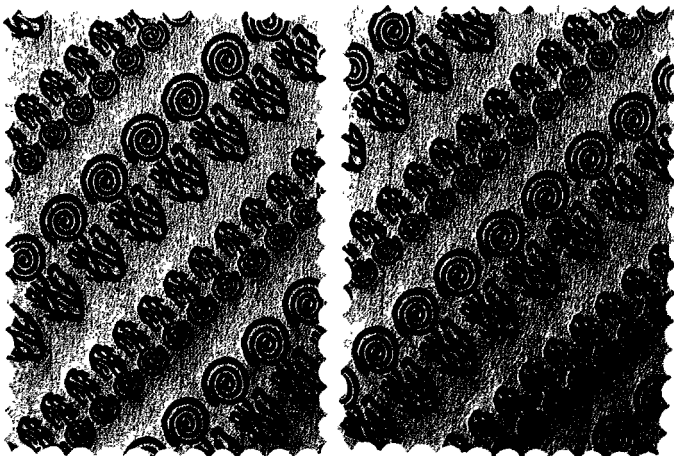
· 그림50 디자인 소스



· 그림51 패턴 드로잉



· 그림52 칼라웨이



· 그림53 제품 C



나. 날염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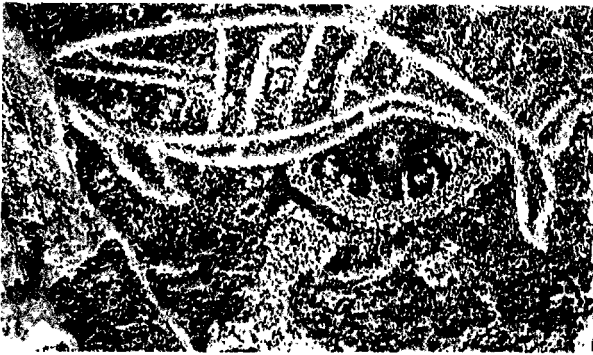
1) 고래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D)

고래는 반구대 바위그림에 새겨진 200여점의 동물 중에서 사슴과 함께 제일 많이 표현된 동물이다. 우측 암벽 맨 끝부분에 선으로 분할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그 밑으로 한 척의 배와 포획된 고래의 모습도 보인다.

물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화면 전체에 자유롭게 재구성 하여 활기차게 바다를 질주하는 고래의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당찬 패기로 행동하는 20대 후반부터 왕성한 사회생활을 통해 독특한 자기세계를 만들어 가는 30대가 타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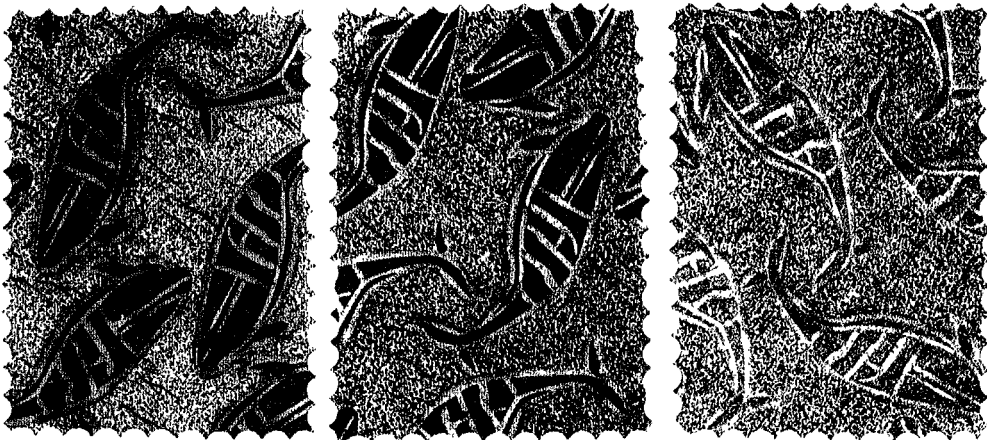
· 그림54 디자인 소스



· 그림55 패턴 드로잉



· 그림56 칼라웨이



· 그림57 제품 D



2) 동물문양을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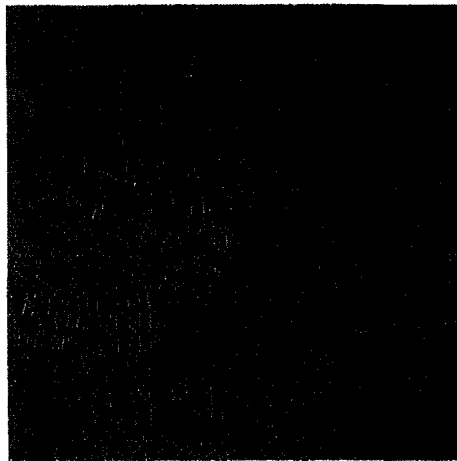
반구대 바위그림 좌측 암면 상단에 표현된 바다거북과 인간, 우리에게 갇힌 호랑이, 사슴, 물개 등 다수의 고래, 특히 작살에 찢린 고래와 새끼고래가 어미고래와 겹쳐진 모습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동물들은 수직구도의 안정된 분위기로 조화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

탁본의 형태를 그대로 확대하여 바위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시간의 연속성을 숫자로 나타내어 손가는대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경직된 느낌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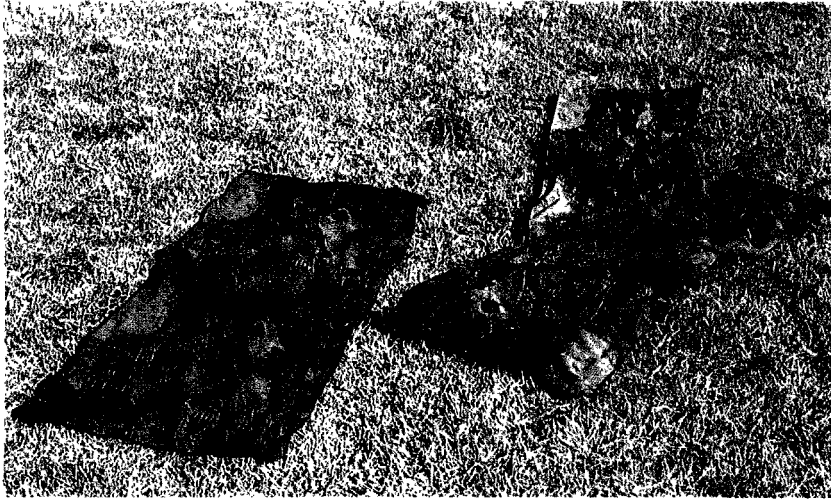
· 그림58 디자인 소스



· 그림59 페이퍼 디자인(paper design)



## · 그림60 제품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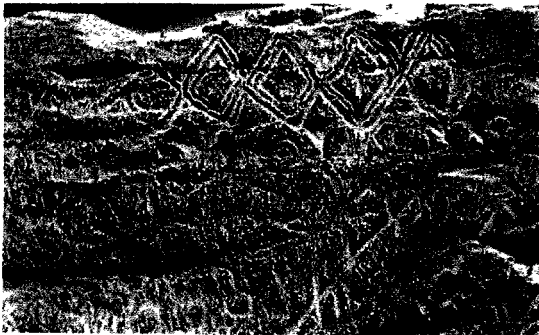
## 다. 컴퓨터 자수

## 가. 마름모꼴 무늬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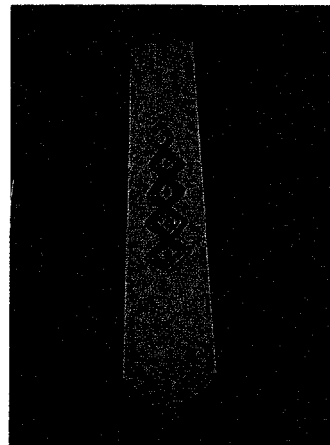
천전리 바위그림 중앙상단에는 3겹의 마름모꼴이 연속적으로 새겨져 있다. 마름모꼴 무늬는 천전리 바위그림에서 가장 많고 또한 가장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무늬이지만 여기서 처럼 마름모꼴이 5개가 횡으로 연결되어 표현된 것은 아주 독특한 예이다.

기존의 넥타이 제작기법에서 탈피하여 넥타이 원단표면에 컴퓨터 자수를 놓아 패서너블한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단순한 형태를 원색의 색상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음으로서 새로운 감각과 세련미를 추구하는 행동과 2~30대를 타겟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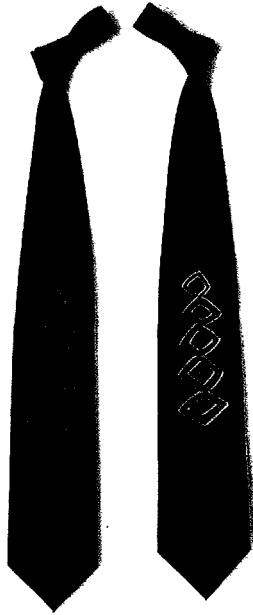
## · 그림61 디자인 소스



## · 그림62 패턴 드로잉



· 그림63 제품 F



나. 얼굴무늬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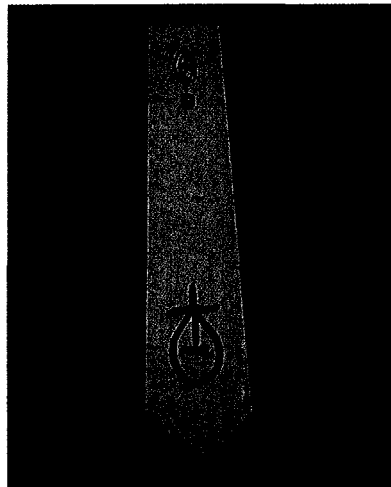
천전리 바위그림에 표현된 인물상 중에 하나로 타원형의 얼굴에 눈과 코가 그려져 있으며 뾰족한 턱이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얼굴의 방향을 거꾸로 바꿔서 디자인 하였으며, 다른 형태의 얼굴들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화면 전체에 리듬감을 주었으며 형태에서 오는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역시 감각적인 젊음을 표현하는 2~30대가 주 타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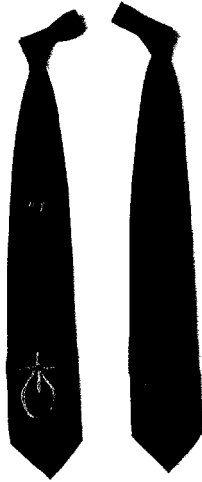
· 그림64 디자인 소스



· 그림65 패턴 드로잉



## · 그림66 제품 G



## IV. 맺음말

본 연구는 바위그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동시에 조형적 요소를 재구성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응용, 전개시킴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의미를 두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디자인 경향은 디자인의 이상성 보다는 현실적인 원리에 편승된 구조로 행동화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가치를 자국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위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무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적 감각과 취향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장식적 요소로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서의 상품개발에 뛰어난 적용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내재적 의미와 아울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상품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고유디자인, 즉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소프트 웨어'로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장식성과 실용성은 일상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현실적 기능으로써 현대인을 상호공간에서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더욱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는 다음 과제로 넘기며, 본 연구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한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지희 · 정이상 · 신중규, 『날염디자인』, 조형사, 1992
- 송변수, 『현대섬유미술』, 디자인하우스, 1996
- 이경순,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현암사, 1994
-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 이수철, 『텍스타일 디자인』, 조형사, 1992
- 이하우 · 한형철, 『칠포마을 바위그림』, 포철고문화연구회, 1994
- (주)클리포드, 『The Necktie & Shirt』, 금석인쇄사, 1994
-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의 암각화』, 민음사, 1996
- 황수영 · 문명대, 『반구대』,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4
- 황용훈,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1987

### 논문

- 강종화, 「어패럴 텍스타일 기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연배, 「가야유물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조형논총』 제1권 제3호, 1996
- 김영미, 「한국 선사암각화의 형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정혜, 「전통문양을 이용한 스카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심춘섭, 「한국 텍스타일 디자인의 주변환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안수영, 「민화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지민, 「한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임세권, 「한국 선사시대의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도록

- 국민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선사시대 암각화-탁본전』, 1993